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교회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마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권홍용 편집: 양재웅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종려주일 · 개신(오늘)

월요일 · 권위(29일)

화요일 · 변론(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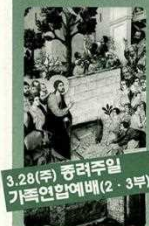
수요일 · 순도(31일)

목요일 · 준비(4월 1일)

금요일 · 수난(4월 2일)

토요일 · 예비(4월 3일)

부활주일 · 승리(4월 4일)



3.28(주) 종려주일
가독인입에배 (2 · 3부)



3.29(월) ~ 4.2(금)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교구별 약식/4:50시각, 16교구·대학전남부락식)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
(마 21:18~19)
성전 폐하리
(마 21:28~46, 22:1~14)
예수님 열매에 대한 경고
(마 21:5~38)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
(마 26:3~5)
유리의 변명
(마 26:14~16)



유월절 식사(성만찬)
(마 26:17~29)
예수님의 기도과 고백성고
(마 13:31~35, 요 17:8)



4.2(금)
전교인 1일 금식
성금요일 성찬예배
(간타타 및 성찬식, 19:00)



4.4(주) 부활주일
부활절 특별찬양(찬양예배)

예수님 열매
(마 21:18~19)
유리의 변명
(마 13:41~44)

유월절 식사(성만찬)
(마 26:17~29)
예수님의 기도과 고백성고
(마 13:31~35, 요 17:8)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
(마 26:3~5)
유리의 변명
(마 26:14~16)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
(마 26:3~5)
유리의 변명
(마 26:14~16)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
(마 26:3~5)
유리의 변명
(마 26:14~16)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
(마 26:3~5)
유리의 변명
(마 26:14~16)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
(마 26:3~5)
유리의 변명
(마 26:14~16)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
(마 26:3~5)
유리의 변명
(마 26:14~16)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회)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의 구원이 되었다 (로마서 11:11~24)

라에게 주는 영향이다. 이 사실이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했다(롬 11:11).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불렀다(행 11:26).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의 권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곧 '메시아의 무리' (The Messianic People)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루어졌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믿게 된 것이다.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다는 그 사실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질투를 일으켰다. 현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소수의 남은 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바울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날이 올 것을 기대하였다(롬 11:22). 온 이스라엘이 구원 받을 때에만 영광의 그 날이 올 것이다. 지금 바울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방인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롬 11:13~15).

하나님의 선택은 단번에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다(롬 11:16). 거룩한 뿌리에서 이스라엘이 자랐다. 이 나무는 그 전체가 거룩하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속하여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거룩한 나무의 가지가 쓸모없어지면 버려졌다. 많은 가지들이 꺾임을 받았고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접붙임을 받았다. 물론 이 접붙임 받은 가지들은 믿음의 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들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임을 받았다. 구원은 이 접붙임으로 이루어진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에 교회의 뿌리가 있다. 하나님은 아직도 그 뿌리를 뽑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뿌리는 거룩하기 때문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뿌리로부터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이방인들이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이들은 영적 이스라엘로 접붙임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택하신 약속의 백성의 연속이다. 교회야말로 참 이스라엘이며 이스라엘의 남은 자 즉, 본 나무에서 꺾임을 받아 버려지지 않은 자들을 포함한다. 또 부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무에 접붙여진 이방인들도 포함한다. 이들은 돌감람나무의 가지들로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이다(롬 11:17~20).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선하신심이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믿음을 고집할 때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롬 11:22~23). 교만과 자신을 높이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다. 곧 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바뀌어진 것이다. 이러한 자들은 모퉁이 들어선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 위에 세우고 있다(롬 11:20~21). 믿음과 두려움은 서로 관계가 있다. 구원의 확실성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유대인들의 믿지 않음이 이방인들에게 길이 된 것처럼 이방인들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 처지가 바뀔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이실 능력이 있다(롬 11:23~24). 따라서 오직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아멘.

제43대 장로 · 제23대 안수집사 · 제51대 권사 피택자 확정

지난 주일 공동의회를 통해서 제43대 장로 · 제23대 안수집사 후보자의 피택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당회에 위임하였던 제51대 권사 후보자도 피택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위해 공동의회로 다시 모여 개표 결과를 알리자 하지만 (주간충현)공고를 통해서 이를 대신할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피택자들은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고전 4:1)이 되도록 기도를 바랍니다.

*피택자 명단은 본지 5면

4월
교회
일정

2일 (금) 성금요일 성찬예배(간타타 및 제3차 성찬식, 저녁 7시)

4일 (주) 부활주일, 특별찬양(찬양예배 시)

7일 (수) 정기당회(수요2부예배 후)

25일 (주) 장제주일, 제2차 학습세례식(찬양예배 시)

WHO WILL ROLL AWAY THE STONE FOR US?

They were saying to one another, "Who will roll away the stone for us from the entrance of the tomb?"

(Mark 16:3)

After Jesus died, the day before the Sabbath, Joseph of Arimathea removed His body from the cross, wrapped it in linen cloth, placed it in a cave type tomb, and closed the opening with an enormous stone. The Bible tells us that when the Sabbath was over, Mary Magdalene, Mary the mother of James, and Salome brought spices to Jesus' tomb to prepare Him for permanent burial (Mk. 16:1). As they were walking to the tomb and talking to each other, they all wondered who would remove the stone so that they could get to Jesus' body. They were concerned about the stone, not about Jesus' resurrection or their salvation. Jesus told His disciples on the way to the cross, "Behold, we are going up to Jerusalem, and all things which are written through the prophets about the Son of Man will be accomplished. For He will be handed over to the Gentiles, and will be mocked and mistreated and spit upon, and after they have scourged Him, they will kill Him; and the third day He will rise again" (Lk. 18:31-33). Jesus fulfilled all the Old Testament prophecies. He rose from the dead! The stone wasn't a barrier for Him, and it's no longer a problem for us either. What does the stone signify?

The stone represents the despair of death. It blocked the way to the tomb. It covered the entrance, so that those outside could not get in. Its purpose was to seal death in and keep life out. The stone speaks of death holding loved ones from us. When a loved one dies, the tomb blocks those from the outside seeing in, and those from the inside seeing out. Christ's resurrection rolled the stone away. Someday we will see our loved ones in Christ who have died. 1 Corinthians 15:20 says, "But now Christ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the first fruits of those who are asleep." We have victory over death through Christ, "O death, where is your victory? O death, where is your sting? The sting of death is sin, and the power of sin is the law; but thanks be to God, who gives us the victory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1 Cor. 15:55-57). When Peter received the Holy Spirit in Jerusalem, he first preached, "Men of Israel, listen to these words; Jesus the Nazarene, a man attested to you by God with miracles and wonders and signs which God performed through Him in your midst, just as you yourselves know—this Man, delivered over by the predetermined plan and foreknowledge of God, you nailed to a cross by the hands of godless men and put Him to death. But God raised Him up again, putting an end to the agony of death, since it was impossible for Him to be held in its power" (Ac. 2:22-24). Jesus conquered death. He resurrected! Through your faith in Christ, death's despair is overcome by eternal life's hope.

The stone represents the effort of the enemies of Jesus. The stone was sealed by the Roman Empire. This was done at the request of the chief priests and Pharisees, the faithless religious leaders who were envious of Jesus Christ. They went to Pilate and said, "Sir, we remember that when He was still alive that deceiver said, 'After three

days I am to rise again.' Therefore, give orders for the grave to be made secure until the third day, otherwise His disciples may come and steal Him away and say to the people, 'He has risen from the dead,' and the last deception will be worse than the first. Pilate said to them, 'You have a guard; go, make it as secure as you know how.' And they went and made the grave secure, and along with the guard they set a seal on the stone" (Mt. 27:63-66). Besides the pagan and Jewish enemies, there were also supernatural enemies of Jesus, namely Satan. Jesus told the Jews, "You are of your father the devil, and you want to do the desires of your father. He was a murderer from the beginning, and does not stand in the truth because there is no truth in him. Whenever he speaks a lie, he speaks from his own nature, for he is a liar and the father of lies. But because I speak the truth, you do not believe Me" (Jn. 8:44-45). Satan and his demons have no power over Christ. He defeated them all, "having canceled out the certificate of debt consisting of decrees against us, which was hostile to us; and He has taken it out of the way, having nailed it to the cross. When He had disarmed the rulers and authorities, He made a public display of them, having triumphed over them through Him" (Col. 2:14-15).

The stone represents anything that separates us from our savior. The women worried, and thought the stone separated them from Jesus. Sin is the real culprit that separates people from God. Isaiah 59:1-2 say, "Behold, the Lord's hand is not so short that it cannot save; nor is His ear so dull that it cannot hear. But your iniquities have made a separation between you and your God, and your sins have hidden His face from you so that He does not hear." Jesus came to save sinners, "For the Son of Man has come to seek and to save that which was lost" (Lk. 19:10). Nothing can separate us from the eternal love of Jesus, "For I am convinced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or angels, nor principalities, nor things present, nor things to come, nor powers, nor height, nor depth, nor any other created thing,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which is in Christ Jesus our Lord" (Rom. 8:38-39).

My dear friends, God moved the stone, "Looking up, they saw that the stone had been rolled away, although it was extremely large" (Mk. 16:4). Look at the stones in your life with faith. When you look with faith, all your fears will disappear. The angel told the women at Jesus' tomb, "Do not be amazed; you are looking for Jesus the Nazarene, who has been crucified. He has risen; He is not here; behold, here is the place where they laid Him" (Mk. 16:6). Jesus is calling all the weak, tired, sorrowful, and guilty people,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Mt. 11:28). The women were scared, but the angel reassured them and told them to go and tell His disciples that He's alive. The stone was removed. Let's praise the Lord and spread the good news of Christ's resurrection. Let's rejoice because the stone was rolled away. Amen. ■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김석관 목사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마가복음 16:3)

예 수님께서 돌아가신 안식일 전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영원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막 16:1). 그들은 무덤을 향해 걸어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수님의 시체에 가까이 가려면 누군가 입구를 막은 돌을 옮겨 주어야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해 줄 것인지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나 자신들의 구원이 아니라 돌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 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눅 18:31~33).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돌은 예수님께 아무런 걸림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돌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은 죽음을 말하고 있다

돌은 죽음에 대한 절망을 상징합니다. 돌은 무덤으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돌이 입구를 가리고 있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의 목적은 죽음을 봉인하고 생명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습니다. 돌은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로부터 떼어놓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무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또한 안에 있는 사람이 밖을 보지 못하도록 격리시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돌을 멀리 옮겨 놓았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앞서 간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20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깁니다. “사망이 너의 승리 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네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전 15:55~57).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은 후 그가 한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온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행 2:22~24).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은 죽음의 절망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돌은 예수님의 원수들의 권위를 상징한다

돌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노력을 상징합니다. 돌은 로마 정부에 의해 봉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했던 믿음 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에 의해 행해진 일이었습

니다. 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한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마 27:63~66). 이교도와 유대교라는 대적 외에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라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요 8:44~45). 사탄과 그의 종개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범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권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골 2:14~15).

돌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갈라놓고 있다

돌은 우리의 구조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은 돌이 예수님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며 근심했습니다. 죄악 말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는 진범입니다. 이사야 59:1~2는 말씀합니다.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8~39).

하나님께서 돌을 옮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을 옮기셨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레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막 16:4). 여러분의 인생에 놓여 있는 돌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한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느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막 16:6). 예수님은 약하고 곤하며 애용하는 모든 죄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여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들을 안심시키며 가서 제자들에게 그가 살아나셨다고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돌은 옮겨졌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다 함께 기뻐합니다. 돌이 옮겨졌습니다. 아멘. ■

메시아의 죽음 27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마태·마가복음)

다(마 25:31~33, 41; 막 13:1~2, 25~27). 또한 고난의 시작이 종교지도자들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마태와 마가는 동일하게 기록하였다. “그 때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이사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청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 하되”(마 26:3~4, ref. 막 14:1~2).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한 여인의 헌신이 있었다.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인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몸을 닦았다(마 26:6~7, 12~13; 막 14:3,9). 이에 대해 예수님은 “네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다. 계속해서 고난의 시작에 예수님의 제자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도 마태와 마가는 기록하였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거래하였던 것이다(마 26:14~16; 막 14:10~11). 특히 예수님은 자신을 팔자 누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암시해주었고 그의 행동을 안타까워하셨다(마 26:18, 20~21, 23~24; 막 14:16, 18, 20~21).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의 절정은 성만찬이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저녁을 먹으며 최초의 성찬식을 거행하셨다. 이를 통하여 자신의 죽음이 인류구원을 위한 새 언약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히셨다(마 26:26~28; 막

14:22~24). 또한 성만찬에는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도 담겨 있다는 것도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마 26:29, ref. 막 14:25).

메시아의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우선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성숙하신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는 모든 천사와 자기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그 때 모든 민족은 각각 구분되어 심판을 받게 된다. 중간지대는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우리는 장차 이루어질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앞장 선 부류가 종교지도자들이었음을 기억하자. 그들은 메시아를 가장 고대하던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죽였던 장본인이었다. 아들처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만든 전통과 율법에 얽매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종교지도자들의 흉계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될 무렵 두 사람의 모습이 부각된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베다니의 마리아였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롯 유다였다. 우리는 어느 편에 가까웠는가? 한 때 죄와 가까웠던 마리아는 회개하였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예수님과 가까웠을 뿐 회개는 없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회개다. 참된 회개 없다면 성찬의 은총과 관계없다. 가롯 유다처럼 성찬에 참여한 후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될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다. 반면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나그네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자. 세상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어 십자가를 지자. 아멘.

* 매월 월요일새끼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요일부예배 메시지(2010. 3. 24)

빌라도의 결정
(마태복음 27:18~26)

예수님은 종교지도자들에 의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졌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질문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에 예수님은 “네 말이 옳다”라고 답하셨다(마 27:11). 고발을 당한 사람은 보편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다(마 27:12).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빌라도는 크게 놀라워했다(마 27:13~14). 이제 남은 것은 빌라도의 결정이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결정 모든 장황을 볼 때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은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형이다. “...그들이 다 이르되...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마 27:22~23). 그들은 일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난 것이다.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던 이방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려 애쓰고,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신앙인들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는 종교지도자들의 외식과 위선을 분명히 보게 된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선동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다(마 27:20). 심지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종교지도자들은 로마 황제가 왕임을 서슴없이 말할 정도였다(요 19:4, 6, 12). 자신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지만 자신의 의와 전통에 얽매어 있던 종교지도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한 마음이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이는 데 반드시 동조하게 된다.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처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내의 충고 빌라도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의 아내가 급하게 사람을 보내 알렸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통 많이 태웠나이다”(마 27:19). 빌라도에게 기회가 온 것이다. 빌라도의 아내는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던 예수 때문에 아주 많은 고민을 하였다. 특히 그녀의 말 중에 “옳은 사람”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무죄하고 순결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넘어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빌라도의 아내에게 의인임에도 슬픔과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이상을 보여 주셨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급하게 자신의 남편에게 충고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깊이 고민했는가? 진실로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간구(눅 23:34; 행 7:60)를 드렸는가? 팔십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충고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며 믿음의 충고를 듣고, 믿음의 충고를 해야 할 것이다(사 13:8~10).

●빌라도의 결정 지금까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관청을 세 차례나 오가며 유대인들과 협상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결정에는 변함이 없었다(마 27:18, 22).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최종 결정이었다(요 19:10). 빌라도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고 아내의 충고까지 들은 터라 그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모든 유대인의 반발이 심했기에 빌라도는 타협했다(마 27:24~26).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냐를 따지며 민란의 조짐을 보인 유대인들 앞에서 빌라도는 중립적 태도를 취한 것이다(요 19:12). 결국 빌라도는 “가이사 와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를 외치며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종용하던 종교지도자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했다(요 19:13, 15~16). 비록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썼지만, 자신이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양심, 자기 의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는 빌라도의 결정을 두고 그를 비판한다. 종교지도자들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도 쉽게 비판한다. 그런데 우리도 빌라도처럼 이리 저리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타협하고 아주 쉽게 중립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은가? 자신의 전통과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그들의 선동에 속아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유대 백성과 똑같이 않은가? 정신을 차리자. 우리가 매순간 깨어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빌라도의 결정보다 더 악한 결정을 서슴치 않고 내릴 것이다. 주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믿음의 결정을 내리자.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 주가 영생 주시리.” 아멘.

제43대 장로 피택자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구창희	22	89-1159	김우현	4	82-7	박우현	15	85-94
박재현	9	92-1743	백종운	14	95-525	송한천	7	87-833
예정호	17	87-745	윤병식	8	92-1321	윤선한	1	86-126
이흥기	15	93-1109	임광진	24	82-129	장경욱	6	94-1201
조윤준	21	92-816	최진성	19	84-1239			

제23대 안수집사 피택자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구성혁	15	86-17	권영일	22	91-61	권응동	20	82-132
김단기	10	95-667	김배구	3	87-10	김성택	2	94-1925
김어현	20	94-467	김우준	4	96-1058	김원기	16	2005-0019
김일중	15	92-770	김재기	6	97-89	김정익	15	93-1263
김형수	21	83-571	김형조	14	96-286	박병덕	4	89-1329
박승산	2	95-1183	박연호	19	95-1427	박영민	2	2000-0320
박충순	8	2003-0030	배종록	22	85-274	송근일	9	89-839
신태홍	23	92-1210	양외수	12	99-165	오춘성	6	96-620
윤상규	11	90-978	윤석구	19	519	이광현	24	2000-0020
이근우	7	96-57	이기봉	6	2004-0276	이삼연	5	88-672
이상근	12	84-265	이상범	12	4422	이상안	24	96-1249
이상주	23	4854	이석재	18	88-320	이왕진	13	97-822
이재관	1	98-1228	이종훈	3	87-352	임종영	19	2005-0069
임춘균	17	4922	정구현	21	2005-0290	정재석	20	2002-0046
조윤성	13	92-87	조한주	14	93-295	주낙진	11	79-40
주영선	14	85-454	최승철	16	93-1974	최용익	23	86-230
최재필	9	94-35	최진원	11	96-1018	최창하	6	87-50

제51대 원사 피택자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강영희	12	89-827	고미숙	22	92-1595	곽경숙	7	89-681
곽노경	1	88-940	구영숙	23	2000-0106	김경아	8	81-45
김경이	18	84-981	김대옥	15	94-2006	김명희	10	89-232
김삼희	24	91-1132	김수자	20	2601	김순자	6	99-41
김애순	21	86-428	김유자	6	85-569	김재남	23	88-685
김춘란	8	84-1386	김현옥	10	86-123	김희숙	22	96-225
남주옥	1	93-1020	노재희	14	3264	노현례	15	98-638
노희례	3	92-1727	문희	3	89-608	민순기	6	94-1201
박난용	7	91-127	박미혜	21	87-455	박은주	10	82-532
박재귀	12	91-965	배연식	16	89-865	서해정	2	98-1225
송령자	5	88-49	신화숙	18	92-1926	심해식	3	84-696
안화순	2	94-334	오부자	21	97-585	오은경	11	91-1158
유순원	3	96-739	유영자	14	90-825	유주목	9	85-55
유춘남	15	81-900	윤희	8	98-1172	이경자	14	2007-0270
이교숙	17	4922	이만순	23	92-105	이명숙	14	85-454
이명희	19	96-418	이선자	11	83-112	이양현	8	87-147
이정애	17	99-1019	이정희	4	91-373	이종실	6	2004-0276
임경순	22	85-969	임문자	1	85-335	임신자	17	84-1189
임영애	16	2005-0018	전인순	20	92-1354	정미자	20	80-366
정삼일	4	90-847	정춘자	14	92-1339	조태숙	13	98-949
주영자	5	5083	지영선	23	81-163	최순금	19	94-914
최영순	24	79-345	최정순	24	84-496	추순옥	18	3136
하말영	19	89-1427	홍경숙	19	519	황경분	2	2002-0345
황명하	13	85-754	황옥영	9	94-26			

*피택자(장로 피택자는 부부동반)는 다음 주일(4월 4일) 찬양예배 후 베다니홀에서
피택자교육 개강예배를 드리오니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정말 주님이 함께 해 주셔서 그저 감사했던 선교교과에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정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진짜입니다. 힘들어도 아파도 슬퍼도 기뻐도 늘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었으니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께서 이 세상 모든 것 운행하시니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주님과 함께 못 박히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신 선교였습니다. 선교지의 영혼들과 나에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 했구요. 그들을 꼭 한국에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선교지의 부흥과 회복이 그들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좋았어요. 더욱 감사한 것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 것이기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내 안의 나를 꺾어버리는 영적 싸움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윤혜리(대학부)

나의 첫 선교

선교를 처음 가 봐서 많이 어색하고 말도 잘 안 나오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서 뿌듯했다. 농촌지역 축회전도를 할 때 나는 선교하는 사람도 많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많이 위축되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오히려 "선교하는 사람이 있으니 빨리 가라"고 말해 주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의 플린 발음을 고쳐주는 사람도 있어서 새로웠다. 어떤 집에서는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발뺌 일어나서 기분 나빠하는 할머니도 있었고, 또 다른 집에서는 오히려 우리한테 불교를 전하기도 해서 안타까웠다. 또 차 안에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동했는데 운전기사가 따라하면서 같이 찬양하며 "아멘"이라고 화답해서 기뻐했다.

어느 대학교에서는 학생들과 영어가 잘 통해서 대화하면서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이메일 주소만 받을 생각이었으나 금방 친해져서 내 메일 주소까지 가르쳐 주며 직접 예수님을 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또 한국어 전공인 학생들과는 더 많이 얘기하고 더 많이 친해질 수 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다. 또한 우리 팀을 위해 기도해 주신 부모님들, 선생님들, 친구들 모두 감사드리다.

문주영(고등부)

지난주에 도착한 선교팀 (2개 팀)

기간	팀	팀장
3월 16일(화) - 3월 24일(수)	12교구 1팀	오재일
3월 16일(화) - 3월 25일(목)	11교구 1팀	이양호

청년1부 수련회

청년1부 수련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



‘1박 3일’이란 새로운 시도. 대살로 나가면서 강론, 팀별 말씀 암송, 위임목사님의 감화 콘서트.
청년1부 수련회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 말씀으로 답을 얻으며 서로를 위해, 교회로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과 나의 관계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다.

수련회 이후 나는 새 생과 변화됨을 얻었지만 험난한 세상에서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더욱 십자가 붙잡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더 사모하며 말씀 안에서 답을 구하는 것으로 내 자신을 일깨는 훈련을 하고 있다. 그렇게 낯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저 높은 곳에서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 나는 오늘도 지극히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긍휼함에 힘입어 살아간다. **권오영**

화려하지 않지만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며 죽도록 충성하면 주 안에서 우리는 소리가 없다. **장문미**

갑작스럽게 바뀐 일정이었지만 위임목사님의 선포문 연주는 나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특별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면 선포문 연주를 듣는 기쁨은 두 배가 되었다. 목사님 내외분과 대학을 나누고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깨달은 것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은 바로 영광이러는 사실이다. 교회를 향한 마음들, 그리고 십자가를 움직여야 하는 면허의 사역 가운데서 내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은 바로 한 영혼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 된다는 것이다. 이 소망은 사랑하는 11명의 동역자들과 청년1부 모든 지체와 공유하고 싶다. **유인**

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 청년1부 공동체와 중헌교회에 속한 영혼들이다. **최병기**

십자가 없는 영광과 승리는 없다.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 우리 인생은 멸망이며 약속이다. 하

나님의 성품으로 부르고서 거룩하심과 영광으로 부르셨다.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의 강하게 하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삶을 분출하며 그 소중하는 참다운 승리를 갖게 하신다는 것. 신자 된 존재와 인간 그 영광과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복을 누리려는 우리의 일상이 되길, 일찍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하신 데 감사하수련회였다. **변영현**

한 사람의 힘으로는 너무나 인약하지만, “교회와, 공동체가 왜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야 확실히 알 것 같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 줄을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살전 3:8)라는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굳게 서서 한 손에는 말씀을 붙잡고, 다른 손은 동역하는 지체들을 감싸 안고, 그 같은 손들을 놓치지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도록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야겠다. **심지성**



복음 안에서 나는 은혜

청년1부 수련회에 위임목사님이 찾아 오셨다. 청년들과 어울려 대화를 나누는 모습 속에서 문득 목사님이 어린 아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색소폰으로 멋진 연주도 애 주셨고, 무엇보다도 목사님과 아주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자유함이란?

질문 안에 이미 스스로의 법(rule)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물론 내 안에 자유함을 설명할 수 있는지만 그것을 말하면 인간은 연약하여서 그것에 맞추어 주님을 찾으려 할 것이다. 각각 자신의 체험이 있을 것이다.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못하는 게 우리의 금식이다. 예수님이 당신의 속에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참 자유이다! 오직 주 안에서...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미국에서 한창 성공 가도를 달리던 36세 때 심장기에 안 좋아 쓰러졌고, 그해 12월 24일 홀로 떠난 여행에서 처음으로 진과 주님을 찾으며 울면서 기도했다. 그 전에 읽은 말씀들은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고, 나도 그 전엔 성공을 위한 기도만 했다. 하지만 그렇게 찾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란 말씀을 주셨고, “내 본망”은 갈... 오직 저 같이”이란 찬양으로 십자가만이 오직 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애 주셨다. 그때부터 내가 죽고 내가 버려지는 갈사의 기도를 배워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목사님이 꿈꾸고 계시는 청년부를 향한 구체적인 방향성은? 먼저 나의 생각이 드러날까 봐 조심스럽다. 내가 꿈꾸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로님들과 말씀으로 하나됨이 필요하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의 꿈을 버려가며 목회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나갈지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길 바란다.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 청년들에게 조언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아와를 만드셨다. 아담이 아와와 첫 대면을 했을 때 애써서 좋고, 독목에서 좋고, 가진 게 많아서 좋은 게 아니었다. 아와 그대 자체가 좋다고 한다. 갖게 애달라고 기도하라.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랑할 수 있게 애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존비하신다는 분명이 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한 말씀을 듣고 차란 열매, 차매들이 만나 결혼을 했으면 한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만나서 그것을 바라보며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면 그것이 답이 아니겠는가!

요즘 주일5부예배(젊은이 예배)에 왜 설교를 안 하시나요?

많은 성도와 설교를 듣고 싶어 한다. 그래서 주일찬양예배에 설교를 선택하게 되었고, 예배준비를 위해서는 5부예배에 설 수가 없다. 청년들의 많은 양해를 바란다.

왜 목사님과래 이런 만남을 자주 할 수 없는가?

지난 번 설교말씀(창 6:1~4)처럼 교회 안에 집사를 세웠던 이유를 기억하자. 목사가 영혼을 찾아가 성교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목사가 제일 먼저 애야 할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부목사님들과고만 교제하러 애도 일 년의 반 이상이 소요된다. 나는 설교를 6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 목사가 성도와 교제하는 것은 마땅하나 성도들에게 더욱 중요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설교 준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시간을 내주길 부탁한다.

목사님은 언제 시험에 드시고 기도제목은 무엇인지?

내 자체가 시험이다. 외부적인 요인은 없다. 나의 기도제목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취재/ 이은정·이한석 기자



성금요일 칸타타 '영원한 삶'

2009년 성금요일 칸타타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금요찬양집회의 말씀 시리즈 '그리스도의 삶'에 은혜를 받은 한 음악가에 의해서 작곡된 찬양을 가지고 온 성도가 찬양대가 되어서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깊이 심령에 새기었다. 이번 성금요일에도 동일한 보혈의 은혜가 예정되어 있다. 2010년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과 죽음, 부활과 재림의 순복음을 담은 '영원한 삶'이다. 총 13곡이 드러지며 이중 성도가 함께 드려야 할 찬양은 4곡이다. 그 동안 금요찬양집회 때 연습하며 지도받은 대로 각 가정에서 연습하여 온전한 찬양이 되도록 준비하길 바란다.

1. 서곡 2. 한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여(연립찬양대) 3. 하나님의 아들 예수(테너 솔로)
4. 고요한 중에(성도 찬양) 5. 지극히 높으신(연립찬양대)
6. 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현드셀렌주대 · 성도 찬양)
7. 주 찬양하라(여성 중창) 8. 구원의 주 예수(테너 솔로)
9. 아기 예수 찬양하라(테너 솔로) 10. 바를림(성도 찬양)
11. 알렐루야, 아멘(여성 중창)
12. 주께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하시리라(테너 솔로) / 오라 무거운 짐 진 자들아(연립찬양대)
13. 거룩한 성(성도 찬양)



월요일 새벽기도회 '메시아의 죽음'을 듣고

오직 저 길, 십자가의 길

위임목사님이 오신 후 이전에는 장례식에서만 부르는 줄 알았던 찬송들이 많이 부릅니다. 부활수록 은혜가 되고 가사의 깊은 의미가 다가옵니다.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살 34는 분한 집에서 주님을 만나 뵈 날이 귀하고 기대되며, 또한 마음에 실감이 납니다. 그 곳에서 주님이 저를 찾아주시며 주님의 사랑에는 감히 미치지 못하지만 주의 은혜로 저도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계산하고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눈물이 날까 상상해 봅니다. 주님의 은총은 결코 인간의 삶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저 길이 무엇이었나?" 그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니 십자가의 길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왜 용납하시나?" 그 물으시면서 회개해서 그렇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 앞에 남은 길은 제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짊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기뻐하여 보혈의 공로와 관계를 맺는 길입니다. 이것만이 분향으로 인도하는 길이며 이것은 재임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좁은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고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몸의 제물로 인해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주여! 눈을 들어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서의 표현 방식들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이 모두가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저희에게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심정, 또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량하고 풍성하게 알려 줍니다. 보혈의 공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면 할수록 구원의 기쁨이 클 수밖에 없고, 겸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 행한 것 죄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죽으신 구주만 자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가롯 유다를 놓고 괴로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심을 말씀을 통해 보니 지난 창세기후원에서 말씀하신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의 중보가 기억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흉악한 범죄자인 자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날마다 십자가의 중한 고 통당하신 그 주님만을 깊이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송진경(전도사, 대학부)



종려나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라고 부른 사건(요 12:12-13) 때문에 우리는 종려나무(히브리어 '타마르', 영어 'Date Palm')에 익숙하다. 목재가 귀했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나 간단한 가구를 만드는 종려나무를 이용했으나 현재는 그 열매만을 사용한다. 지금은 이스라엘보다 상대적으로 기후가 더운 요르단 계곡, 사해 주변, 아라비아 계곡 등에서 종려나무를 많이 기르고 있다. 사해 가까이 여러고과 종려의 성읍으로 불렸다는 신 34:3, 대하 28:15).

종려나무는 키가 크고 곧으며, 또 여름을 지나면서 그 열매가 아주 탐스러워지는데, 아가서 7장 7절은 바로 이런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신부의 키가 종려나무 같고 그 아름다운 가슴이 종려나무의 열매 송이와 같다는 말이다. 이렇게 종려나무는 우아함이나 축복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대 여자들의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다윗의 아들 압사에 의해 추방을 당한 압사들의 누이 동생 이름이 바로 '종려' (다말=타마르)였다.

유대인들은 매년 가을의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초막을 치는데(모든 사람이 초막을 치는 것은 아니며, 또 자주 초막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 그 초막의 지붕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한다. 종려나무는 알나무, 수나무가 있으며 알나무는 5~6년 생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50여 년 정도까지는 매년 30cm 정도 자라다가 그 이후는 성장이 둔화되는데, 키가 약 20m 정도 되는 종려나무는 수령이 약 100년쯤이라고 한다.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85	박종구	5 중동부	권정욱(22)	297	나구한	1 대학부	한영덕(24)
286	이미경	5 장년1부	권정욱(22)	298	조영애	15 장년2부	이종심(6)
287	이영애	1 청년2부	임은혜(1)	299	김정자	18 장년2부	정명자(21)
288	김정현	5 장년3부	김순자(5)	300	김진수	13 대학부	송근일(9)
289	박용균	1 청년2부	오정례(1)	301	정지환	3 대학부	전순희(3)
290	민소연	1 청년2부	오정례(1)	302	최복화	4 장년2부	
291	성기만	19 장년1부	김석재(14)	303	황 호	18 장년1부	원용숙(23)
292	방초	25 외선부	김영옥(18)	304	박영호	10 대학부	신현철(10)
293	홍	9 외선부	김석영(7)	305	한수연	17 대학부	한희송(17)
294	최동영	2 청년1부	공석성(18)	306	키달	25 외선부	한석연(23)
295	최희현	1 청년2부	유기순(6)	307	수잇	25 외선부	한석연(23)
296	양무인	19 장년1부	이양래(10)				

* 송진경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